



REPORT

스마트헬스케어 국내외 기업 동향 비교

2017. 3

스마트 헬스케어 국내외 기업 동향 비교

1. 글로벌 주요 기업 동향

- 해외는 ICT뿐 아니라 비ICT업계의 활발한 스마트헬스케어 시장 진출 및 투자 확대, 신흥국 시장 선점 노력 중
 - 애플, 구글, 인텔 등 ICT 기업들은 센서, 데이터, 플랫폼 등 스마트헬스케어 전 분야에 걸쳐 영향력 확대 중
 - 구글, 퀄컴은 사내 벤처캐피탈을 통한 스마트헬스케어 투자규모가 각각 미국 2위, 5위¹⁾를 차지할 정도로 투자에 적극적

<해외 ICT 업계의 스마트헬스케어 사업 추진 현황>

기업	내용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방형 스마트헬스케어 플랫폼 ‘헬스키트(Health Kit)’ 공개(‘14.6) - 애플워치, 모바일앱 등을 병원 등과 연계해 생태계 조성 모색 - 의사·과학자 대상 질병연구 플랫폼 ‘리서치 키트(Research Kit)’ 공개(‘15.3) - 전 세계 아이폰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연구 활용 기반 확보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방형 스마트헬스케어 플랫폼 ‘구글핏(Google Fit)’ 공개(‘14.6) - 의료기관 연계보다 개인의 데이터 활용에 주력한 생태계 조성 - 23andMe(유전자분석기업)에 대규모 투자로 유전자 분야 사업기반 확보 - 제약회사인 노바티스 등과 제휴를 통해스마트렌즈 개발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GE헬스케어와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헬스케어 사업 진출 - IBM과 제휴해 맞춤형 의료를 위한 헬스케어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미국 최대 의료보험사 UnitedHealth와 제휴해 원격진료 서비스 제공 - 인도에 헬스케어 연구소 설립, 중국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진행 등 아시아 신흥국 시장 진출 노력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조직 내 헬스케어서비스 전담부서 신설 및 신사업 추진 - 의료영상 이미지 및 정보 관리, 공유 서비스 제공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아프리카에서 제약회사 등과 제휴해 5,0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약품 재고관리서비스 제공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스마트헬스케어 전담 자회사인 퀄컴라이프(Qualcomm Life) 설립 - 생체 정보 플랫폼을 기반으로 생태계 구축 도모

자료: 스마트헬스케어의 부상에서 찾아야할 기회요인(2016, KDB산업은행)

1) '15년 기준, StartUp Health('15.12), "StartUp Health Insights Year End Report 2015"

2. 국내 기업 동향

- 국내는 대기업 위주 시장 진출 초기, 기기·단말 분야 편중 경향
 - 최근 일부 대기업들의 스마트헬스케어 시장 진출이 증가했으나, 본격적 사업 추진보다 연구개발 및 초기 사업검토 단계
 - 기기, 부품 중심 사업 추진으로 솔루션, 서비스 등 분야는 취약
 - 중견·중소기업의 시장 참여는 해외에 비해 다소 저조한 편
- 〈국내 주요 대기업의 스마트헬스케어 사업 추진현황〉

기업	내용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스마트기기를 통한 헬스케어 데이터 저장·분석 플랫폼 ‘SAMI’*와 스마트밴드 형태의 웨어러블기기인 ‘심밴드(Sim Band)’ 공개(‘14.5) *Samsung Architecture for Multimodal Interactions의 약자로, 향후 스마트 헬스케어뿐 아니라 사물인터넷 생태계 확장에 활용할 방침 - 국내외 의료기기 및 솔루션 기업 인수(한국 메디슨, 미국 넥서스 및 뉴로로지카 등) 및 사업 협력(미국 써모피셔사이언티픽 등) - 삼성 그룹 차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,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바이오·제약 분야와 시너지 모색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LG 그룹 차원의 스마트헬스케어 사업 주도, LG CNS 등과 협력 - 국내 병원(명지병원, 자생한방병원 등), 제약회사(보령제약 등) 등과 헬스케어 사업 공동 추진 - 한국의료정보교육협회와 공동으로 의료정보시스템 분야 인재 육성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스마트헬스케어 솔루션, 의료기기 등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강화 - 국내외 의료기기 제조사(한국 나노엔텍, 중국 티엔롱 등) 지분 인수 - 국내외 병원(서울대 병원, 길병원 등), 관련 기업(독일 지멘스헬스케어, 미국 소마로직 등) 등과 사업 협력 체결 - 국내 중소 의료기기 제조사와 동반성장 컨소시엄 구성 등 투자 추진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세의료원과 합작해 ‘후헬스케어(HooH Healthcare)’ 설립 및 병원들을 대상으로 병원정보시스템 개발, 보급 사업 추진 - 지자체(마산시 등), 병원(분당 서울대 병원등) 등과 사업 협력 체결 - 서울대와 바이오인포메틱스 연구센터 설립 및 유전체 분석 공동연구 - 사내벤처인 KT바이오시스(제대혈 보관은행) 운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열사인 포스코 ICT를 통해 ‘한국의료정보원 컨소시엄’ 주도 - 계열사인 포스코건설은 송도국제도시 입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정보 수집, 분석 등을 포함한 u-헬스케어 서비스 제공

자료: 스마트헬스케어의 부상에서 찾아야할 기회요인(2016, KDB산업은행)

3. 시사점

- 대기업 위주에서 탈피하여 중견·중소기업들의 시장 참여를 유도하고, 기기·부품 위주 품목의 사업 집중화에서 벗어나 솔루션, 서비스 등 분야의 다양화를 추진화할 필요가 있음



(주)에이치앤컨설팅

(주)에이치앤컨설팅

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4길 96, 구산빌딩 2층

T: 02-561-0025, F: 02-561-0026

담당: 조인영 이사

CONTACT: Help@hnconsulting.co.kr